

## 柳氏逍遙散과 柳氏歸脾湯의 抗스트레스 效果에 關한 臨床的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李錫駿 · 柳熙英\*

으로 알려져 있다.<sup>30,32,37)</sup>

### 1. 緒 論

逍遙散은 陳(1107)<sup>26)</sup>이, 歸脾湯은 嚴(1253)<sup>20)</sup>이 처음으로 收載하면서 逍遙散은 肝脾血虛, 肝氣鬱結, 歸脾湯은 思慮過度로 인한 心脾血虛와 全身症狀 및 神經精神疾患에 應用<sup>1-3,6,13,15)</sup>되어온 治方들이다.

精神疾患은 주로 內因이 많으나 外因도 있으며<sup>3)</sup> 人體의 內外的刺戟 要因에 의한 變化를 氣의 變化로 表現하여<sup>1,14,15,57)</sup> 怒하면 氣上하고, 喜하면 氣緩하고, 思하면 氣結하고, 悲하면 氣消하고, 恐하면 氣下하고, 驚하면 氣亂하고, 寒하면 氣收하고, 熱하면 氣泄한다<sup>21)</sup>고 하였으며, 情緒의 變化인 七情의 便乘이 人體 五臟에 대하여 不利한 影響을 주는데 喜는 心을 傷하게 하고, 怒는 肝을 傷하게하고, 思는 脾를 傷하게하고, 憂는 肺를 傷하게하고, 恐은 腎을 傷하게 한다<sup>21)</sup>고 하였다.“百病 皆生於 六氣”<sup>24)</sup>라 하여 外感六淫이 人體에 影響을 미치며 情志의 內傷은 七情(喜,怒,憂,思,悲,驚,恐)의 波動이 極烈하거나 오랜동안 持續되면 多樣한 身體的 變化를 일으켜 疾病이 發生한다.<sup>1,3,14,15)</sup>

心理的인 事件들은 物理的인 스트레스 要因과 同一한 스트레스 反應을 보이는데<sup>56)</sup>, 成人初期(20-29세) 男子들은 考試나 入試등 重要的 試驗 및 學校問題등이 狀態不安과 特性不安에 가장 많은 影響을 주는 生活事件 要因이며 不安 狀態에서 個人的 스트레스 知覺은 더욱 증가한다.<sup>49)</sup> 스트레스는 精神疾患에의 影響이외에도 身體疾患 또는 內分泌機能에도 影響을 미치는 것

情緒狀態에 따라 人體의 血中脂質이 影響을 받는데<sup>78)</sup>, 血中 cholesterol은 스트레스에 敏感하게 反應하여 8%-65%까지 增加한다<sup>82)</sup>. 醫科 大學生들은 시험기간 동안에 血中 cholesterol이<sup>85,98)</sup>, 長時間의 비행기 旅行이나<sup>81)</sup>, 또는 생활 스트레스량이 많아지면 血中 triglyceride가 모두 增加한다<sup>37)</sup>. 갑상선 호르몬은 情緒的 要因에 의해 分泌가 促進되고 精神障礙 특히 情動障礙와 명백한 聯關性이 있다<sup>38,65,72)</sup>. 스트레스를 받으면 corticosteroids의 分泌가 增加되고 그 結果 免疫機能이 減少하는데<sup>28)</sup>, 醫科 大學生들은 試驗과 學業 스트레스로 免疫機能이 減少한다<sup>87,89)</sup>고 하였고, 心理的인 스트레스도 역시 ACTH와 corticosteroids 分泌를 刺戟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55)</sup>.

逍遙散의 動物實驗은 裴(1983)<sup>48)</sup>는 加味逍遙散이 肝機能에, 孫(1986)<sup>51)</sup>은 甲狀腺機能亢進症에, 許(1986)<sup>74)</sup>와 伊藤 등(1986)<sup>102)</sup>은 自發運動에 미치는 影響을 報告 하였으며, 金(1989)<sup>40)</sup>은 物理的 刺戟에 대한 抗스트레스 效果를 尿中 catecholamine을 指標로 報告하였다. 臨床實驗은 金 등(1987)<sup>33)</sup>은 加味逍遙散이 肝氣鬱滯型 肝疾患을 61% 好轉시켰다고 報告하였다.

歸脾湯의 動物實驗은 鄭(1979)<sup>66)</sup>은 肝 TBA치 減少와 血壓降下, 鎮痛效果를, 李(1979)<sup>62)</sup>는 睡眠時間 및 鎮痛作用에, 朴(1990)<sup>46)</sup>은 過敏反應 및 免疫細胞의 機能에, 櫻川 등(1991)<sup>103)</sup>은 免疫機能에 대한 影響을, 文(1986)<sup>43)</sup>과 吳(1989)<sup>58)</sup>는 物理的 刺戟에 대한 抗스트레스 效果를 尿中 catecholamine을 指標로 報告하였다.

臨床實驗은 柳(1991)<sup>61)</sup>는 怔忡에 관한 效果를, 洪谷 등(1991)<sup>104)</sup>은 不安神經症, 不眠症에 90%의 有效率이라고 報告하였으나, 逍遙散과 歸脾湯의 加味方들이 心理的 不安에 대하여 人體에 미치는 研究報告를 접해 보지 못했다.

이에 著者는 行政, 司法考試 準備로 情緒가 緊張된 集團들을 對象으로 逍遙散에 葛花와 白疾藜를 加味한 柳氏逍遙散, 歸脾湯에서 人蔘을 除去하고 葛花, 石菖蒲, 紫檀香를 加味한 柳氏歸脾湯을 각각 3주간에 걸쳐 服用시켜 服用前後에 血中脂質의 變化와 甲狀腺 hormone, 副腎皮質 hormone 등을 測定하여 比較檢討한 結果 有意한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研究對象 및 方法

### 1. 對象 및 材料

表 1. Prescription of *Lyu's Soyosan*  
(柳氏逍遙散)

韓藥名	生藥名	重量(g)	비고	
白朮	Rhizoma <i>Atractylodis Macrocephalae</i>	4	逍遙散	
白芍藥	Radix <i>Paeoniae Lactiflorae</i>	4		
白茯苓	<i>Poria</i>	4		
柴胡	Radix <i>Bupleuri</i>	4		
當歸	Radix <i>Angelicae Gigantis</i>	4		
麥門冬	Radix <i>Ophiopogonis</i>	4		
甘草	Radix <i>Glycyrrhizae</i>	2		
薄荷	Herba <i>Menthae</i>	2		
生薑	Rhizoma <i>Zingiberis</i>	3		
葛花	Flos <i>Puerariae</i>	4		加味
白疾藜	Fructus <i>Triburi</i>	2		加味
TOTAL AMOUNT		37		

註 1) 柳氏逍遙散은 柳熙英教授가 東醫寶鑑<sup>13)</sup>에 準한 逍遙散에 葛花, 白疾藜를 加味한 處方이다. 研究對象群이 술을 자주 마시고 있어서 解酒醒脾하는 葛花를 加味하였고 또한 持續的인 心理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平肝解鬱作用의 白疾藜를 加味하였다.

### 1) 對象

研究對象群은 1993년 3월 24일부터 1993년 4월 24일까지 韓國外國語大學校 行政, 司法考試 研究班員 총 80명중 血壓, 脈搏, 一般血液檢査(RBC, WBC, hemoglobin, hematocrit), 血糖檢査, 肝機能檢査를 施行하여 健康에 異常이 없다고 認定되는 男子 45명을 對象으로 하였다.

平均年齡은 25.7 ± 2.5歲(19 - 31歲)이고, 平均考試 準備期間은 2.4 ± 1.5年(0.4 - 7年)이었다.

### 2) 材料

本 研究에 사용한 藥材는 韓方治療劑의 標準化規格統一研究<sup>10)</sup>內의 것으로 良質의 것들을 嚴選해서 使用하였다. 方劑는 柳氏逍遙散<sup>註1)</sup>과 柳氏歸脾湯<sup>註2)</sup>을 使用하였다. 柳氏逍遙散과 柳氏歸脾湯의 處方 內容과 重量은 表 1, 2와 같으며 1錢을 4g으로 換算 하였다.

表 2. Prescription of *Lyu's kwipithang*  
(柳氏歸脾湯)

韓藥名	生藥名	重量(g)	비고	
當歸	Radix <i>Angelicae Gigantis</i>	4	歸脾湯에서 人蔘을 제외	
龍眼肉	Arillus <i>Longanae</i>	4		
酸棗仁(炒)	Semen <i>Zizyphi Spinosae</i>	4		
遠志	Radix <i>Polygalae</i>	4		
黃芪	Radix <i>Astragali</i>	4		
白朮	Rhizoma <i>Atractylodis Macrocephalae</i>	4		
白茯苓	<i>Poria</i>	4		
木香	Radix <i>Saussureae</i>	3		
甘草	Radix <i>Glycyrrhizae</i>	2		
生薑	Rhizoma <i>Zingiberis</i>	5		
大棗	Fructus <i>Zizyphi Jujubae</i>	4		
石菖蒲	Rhizoma <i>Acori Graminei</i>	4		加味
葛花	Flos <i>Puerariae</i>	4		加味
紫檀香	Lignum <i>Santalii Album</i>	2	加味	
TOTAL AMOUNT		52		

註 2) 柳氏歸脾湯은 柳熙英教授가 東醫寶鑑<sup>13)</sup>에 準한 歸脾湯에서 人蔘을 除去하고 葛花, 石菖蒲, 紫檀香을 加味한 處方이다. 研究對象群이 술을 자주 마시고 있어서 解酒醒脾하는 葛花를 加味하였고 또한 開竅安神, 祛痰作用의 石菖蒲와 理氣和胃作用의 紫檀香을 加味하였다. 研究對象群의 一般性을 考慮하여 人蔘을 除去하였다.

柳熙英教授는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神經精神科 主任教授를 歷任하였으며 現在는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學長 兼 附屬韓方病院 病院長이다.

## 2. 方法

### 1) 檢液의 調製 및 服用

#### (1) 檢液의 調製

위의 表1과 表2를 各各 20배 重量(1劑)인 740g, 1040g를 細切하여 韓藥 抽出機(世東엔지니어링)로 4500ml의 淨製水를 加하여 110℃에서 3시간 煎湯하여 2000cc를 얻은 後 알루미늄 4重과우치(ccp pack : 안진商)에 100cc씩 眞空包裝 하였다.

#### (2) 檢液의 服用

辨證設問調査(附錄 1)<sup>註3)</sup>와 四診을 施行하여 肝氣鬱結證<sup>3,12,23,25)</sup>으로 認知되는 22名에 柳氏逍遙散 煎湯液을, 心血不足證<sup>3,12,23,25)</sup>으로 認知되는 23名에 柳氏歸脾湯 煎湯液을 10일동안에 1日 2回, 食後 2시간에 服用 시켰다.

檢液을 10일간 服用한 後에 採血을 實施하였고, 이어서 再次 檢液을 10일간 服用한後에 3차 採血을 實施하였다. 3차 採血에는 柳氏逍遙散群에서는 11명, 柳氏歸脾湯群에서는 16명이 參加하였다.

### 2) 不安性向의 測定 및 스트레스 知覺 評價

#### (1) 不安 性向의 測定

不安 性向의 測定은 Zung<sup>101)</sup>의 自家平定 不安尺度(self-rating anxiety scale : 이하 SAS로 略稱)를 安<sup>55)</sup>이 變案한것을 使用하였다. 이는 5개의 心理的 不安症狀과 15개의 身體的 不安症狀으로 構成되어 있다. 不安 症狀의 各 項目은 不安 程度에 따라 4점 尺度로 評價 判定하도록 考案 되었고 點數 分布는 20점에서 80점까지 分布 되어 있다(附錄2).

#### (2) 스트레스 知覺 評價

스트레스 知覺評價는 Lim<sup>91)</sup>의 최근 일주간의 스트레스 知覺을 評價 할 수 있는 a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scale(이하 GARS로 略稱)를 고<sup>29)</sup>가 變案한것을 使用하였다. 이 尺度에 있어서 스트레스 知覺

註3) 設問紙는 中醫診斷學<sup>23)</sup>을 基礎로 著者가 變案하여 作成한 것으로 肝氣鬱結證의 代表的 症狀 9개(1~9문항), 心血不足證 9개 症狀(10~18문항)으로 構成되어 있다.

點數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경우를 0점으로 하고 極度로 심한 경우를 9점으로 매기도록 되어있다(附錄3).

### 3) 採血 및 血清 血漿 分離 方法

採血은 12시간이상 空腹狀態가 된 午前 8시에서 9시, 安靜된 狀態에서 肘正中皮靜脈(median cubital vein)에서 10ml 1회용 주사기로 10ml를 採血하여 EDTA가 處理된 CBC bottle에 2ml, EDTA (K3)가 處理된 vacutainer에 3ml, plain tube에 5ml씩 分注 하였다.

採血 即時 vacutainer를 4℃ 3600 r.p.m으로 10분간 遠心分離하여 血漿을 分離하였고, plain tube는 室溫에서 1시간 放置한 後 3600 r.p.m으로 10분간 遠心分離하여 血清分離管으로 血清을 分離하였다. 分離된 血漿과 血清은 測定前까지 -20℃ 하에서 冷凍保管 하였고, CBC bottle은 冷蔵保管 하였다.

### 4) 血清脂質 含量測定

#### (1) 血清中 total cholesterol含量測定

血清中 total cholesterol含量測定은 酵素法<sup>9,97)</sup>에 準하여 cholesterol colorimetric test 試藥(Boehringer Mannheim社, Germany)을 利用하여 auto analyzer(Hitachi 736-20, Japan)로 測定하였다.

#### (2) 血清中 triglyceride 含量 測定

血清中 triglyceride 含量 測定은 酵素法<sup>9,97)</sup>에 準하여 triglyceride colorimetric test 試藥(Boehringer Mannheim社, Germany)을 利用하여 auto analyzer(Hitachi 736-20, Japan)로 測定하였다.

### 5) Hormone의 含量測定

#### (1) 血清中 TSH 含量 測定

血清中 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含量測定은 immunoradiometric assay 法<sup>77)</sup>에 따라 <sup>125</sup>I - hTSH COATRIA(Bio Mérieux社, France) Kit를 使用하여 auto gamma counter(Cobra- Model 2500 TR, Packard社, U.S.A.)로 放射能을 測定하였다.

#### (2) 血清中 thyroxine(T<sub>4</sub>) 含量測定

血清中 T<sub>4</sub> 含量測定은 radioimmunoassay法<sup>94)</sup>에 따라 GAMMA COAT M<sup>[125I]</sup> TOTAL T<sub>4</sub> (Clinical Assays, U.S.A.) Kit를 사용하여 auto gamma counter(Cobra- Model 2500 TR, Packard社, U.S.A.)로 放射能을 測定하였다.

(3) 血漿中 ACTH 含量 測定

血漿中 adrenocortico tropic hormone (ACTH) 含量 測定은 radioimmunoassay 法<sup>76)</sup>에 따라 DOUBLE ANTIBODY ACTH (Diagnostic Products Corporation, U.S.A.) Kit를 사용하여 auto gamma counter (Cobra - Model 2500 TR , Packard社,U.S.A.)로 放射能을 測定 하였다.

(4) 血清中 cortisol 含量 測定

血清中 cortisol 含量 測定은 radioimmunoassay 法<sup>83)</sup>에 따라 COAT-A-COUNT CORTISOL (Diagnostic Products Corporation, U.S.A.)Kit를 사용하여 auto gamma counter (Cobra-Model 2500 TR, Packard社, U.S.A.)로 放射能을 測定하였다

6) 統計處理

統計處理는 SAS computer package program을 利用하여 實驗成績의 有意性 檢定은 paired t-test로<sup>11)</sup>, 相關分析은 Pearson의 相關計數(correlation coefficient)<sup>11)</sup>를 利用하여 分析 檢定하였다. P Value < 0.05일때 有意性이 있다고 判定하였다.

III. 結 果

1. 不安性向과 스트레스知覺點數 및 相關關係

研究對象群의 不安性向을 보면 不安點數가 平均 41.0 ± 7.84로 나타났는데, 이는 王<sup>59)</sup>의 正常人 男子 群(20-39세)의 不安點數 平均 37.95 ± 8.32 보다 有意하게 높았다(P < 0.05).

研究對象群의 스트레스知覺點數는 平均 28.62 ± 9.00로 나타났다. 研究對象群의 不安點數와 스트레스知覺點數의 相關關係는 相關係數가 0.52로 有意한 相關性을 보였다(P<0.001). 이는 研究對象群이 正常人들보다 心理的 不安과 精神의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음을 示唆한다.

2. 血清脂質에 대한 影響

1) 柳氏逍遙散 服用群에서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值의 變化

柳氏逍遙散 服用前 총 cholesterol值는 181.00 ± 31.90 mg/dl이었으며, 10일간 服用한 後에는 145.05 ± 20.71mg/dl, 20일간 服用한 後에는 156.09 ± 34.41mg/dl로 服用前에 비하여 모두 有意性 (P<0.001, P<0.05) 있는 減少를 보였다.

柳氏逍遙散 服用前 triglyceride值는 131.00 ± 88.65 mg/dl이었으며, 10일간 服用한 後에는 102.77 ± 49.73 mg/dl, 20일간 服用한 後에는 105.45 ± 48.35mg/dl로

Table I. Effects of Lyu's Soyosan on the Serum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mg/dl)

	before medication (N=22)	after medication	
		10 days (N=22)	20 days (N=11)
total cholesterol	181.00 ± 31.90	145.05 ± 20.71 ***	156.09 ± 34.41 *
triglyceride	131.00 ± 88.65	102.77 ± 49.73 *	105.45 ± 48.35

N : Number of subjects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before medication.  
( \* : p < 0.05 , \*\*\* : p < 0.001 )

모두 服用前에 비하여 減少를 보였는데, 10일간 服用한後에서만 有意性 ( $P < 0.05$ )을 보였다(Table I).

2) 柳氏歸脾湯 服用群에서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値의 變化

柳氏歸脾湯 服用前 총 cholesterol 値는  $165.83 \pm 26.29$ mg/dl 이었으며, 10일간 服用한 後에는  $135.87 \pm 25.74$ mg/dl, 20일간 服用한 後에는  $151.75 \pm 27.04$ mg/dl로 服用前에 비하여 모두 有意性( $p < 0.001$ ) 있는 減少를 보였다.

### 3. 갑상선 hormone에 대한 影響

1) 柳氏逍遙散 服用群에서 TSH,  $T_4$  値의 變化

柳氏逍遙散 服用前 TSH 値는  $2.04 \pm 1.09 \mu U/ml$  이었으며, 10일간 服用한 後에는  $2.16 \pm 1.01 \mu U/ml$ , 20일간 服用한 後에는  $2.57 \pm 1.15 \mu U/ml$ 로 服用前에 비하여 모두 增加하였으나 有意性은 없었다.

Table II. Effects of Lyu's Kwipithang on the Serum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mg/dl )

	before medication (n=23)	after medication	
		10 days (n=23)	20 days (n=16)
total cholesterol	$165.83 \pm 26.29$	$135.87 \pm 25.74$ ***	$151.75 \pm 27.04$ ***
triglyceride	$125.43 \pm 67.13$	$85.83 \pm 39.98$ ***	$122.38 \pm 62.28$

N : Number of subjects Values are mean  $\pm$  standard deviation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before medication.

( \*\*\* :  $p < 0.001$  )

柳氏歸脾湯 服用前 triglyceride 値는  $125.43 \pm 67.13$ mg/dl 이었으며, 10일간 服用한 後에는  $85.83 \pm 39.98$ mg/dl로 服用前에 비하여 有意性( $p < 0.001$ )있게 減少하였는데, 20일간 服用한 後에는  $122.38 \pm 62.28$ mg/dl로 服用前과 비슷하였다(Table II).

柳氏逍遙散 服用前  $T_4$  値는  $8.84 \pm 1.37 \mu g/dl$  이었으며, 10일간 服用한 後에는  $9.62 \pm 1.15 \mu g/dl$ , 20일간 服用한 後에는  $9.35 \pm 1.37 \mu g/dl$ 로 服用前에 비하여 모두 增加하였는데, 10일간 服用한 後에서만 有意性 ( $P < 0.001$ )을 보였다(Table III).

Table III. Effects of Lyu's Soyosan on the Serum Thyroid Stimulating Hormone(TSH) and Thyroxine( $T_4$  )

	before medication (N=22)	after medication	
		10 days (N=22)	20 days (N=11)
TSH ( $\mu U/ml$ )	$2.04 \pm 1.09$	$2.16 \pm 1.01$	$2.57 \pm 1.15$
$T_4$ ( $\mu g/dl$ )	$8.84 \pm 1.37$	$9.62 \pm 1.15$ ***	$9.35 \pm 1.37$

N : Number of subjects Values are mean  $\pm$  standard deviation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before medication.

( \*\*\*  $p < 0.001$  )

2) 柳氏歸脾湯 服用群에서 TSH, T<sub>4</sub> 値의 變化

柳氏歸脾湯 服用前 TSH値는 2.03±0.92 μU/ml이  
었으며, 10일간 服用한 後에는 2.11±1.04 μU/ml, 20일  
간 服用한 後에는 2.18±0.65 μU/ml로 服用前에 비하  
여 모두 增加하였으나 有意性은 없었다.

柳氏歸脾湯 服用前 T<sub>4</sub> 値는 9.07±1.58 μg/dl이었  
으며, 10일간 服用한 後에는 9.53±1.27 μg/dl, 20일간  
服用한 後에는 9.16±1.33 μg/dl로 服用前에 비하여 모  
두 增加하였는데, 10일간 服用한 後 에서만 有意性  
(P<0.01)을 보였다(Table IV).

4. 副腎皮質 hormone에 대한 影響

1) 柳氏逍遙散 服用群에서 ACTH, cortisol値의 變化

柳氏逍遙散 服用前 ACTH値는 27.55±11.80 pg/ml  
이였으며, 10일간 服用한 後에는 24.90±10.31pg/ml로  
服用前에 비하여 減少하였으며, 20일간 服用한 後에는  
17.70±4.64pg/ml로 服用前에 비하여 有意性(P<0.05)  
있게 減少하였다.

柳氏逍遙散 服用前 cortisol値는 17.90±4.30 μg/dl이  
었으며, 10일간 服用한 後에는 14.28±4.97 μg/dl, 20

Table IV. Effects of Lyu's Kwipithang on the Serum Thyroid Stimulating Hormone(TSH) and Thyroxine(T<sub>4</sub>)

	before medication (N=23)	after medication	
		10 days (N=23)	20 days (N=16)
TSH (μU/ml)	2.03±0.92	2.11±1.04	2.18±0.65
T <sub>4</sub> (μg/dl)	9.07±1.58	9.53±1.27	9.16±1.33

N : Number of subjects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before medication.  
( \*\* p < 0.01 )

Table V. Effects of Lyu's Soyosan on the Plasma Adrenocortico Tropic Hormone (ACTH) and Serum Cortisol

	before medication (N=22)	after medication	
		10 days (N=22)	20 days (N=11)
ACTH (pg/ml)	27.55±11.80	24.90±10.31	17.70±4.64
cortisol (μg/dl)	17.90±4.30	14.28±4.97	12.85±4.68

N : Number of subjects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before medication.  
( \* : p < 0.05, \*\* : p < 0.01 )

Table VI. Effects of Lyu's Kwipithang on the Plasma Adrenocortico Tropic Hormone (ACTH) and Serum Cortisol

	before medication (N=23)	after medication	
		10 days (N=23)	20 days (N=16)
ACTH (pg/ml)	29.10±16.97	25.21±15.58	19.12±13.27 <sup>*</sup>
cortisol (μg/dl)	17.94±3.94	13.46±3.69 <sup>***</sup>	12.79±5.03 <sup>***</sup>

N : Number of subjects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before medication.  
 ( \* : p < 0.05, \*\*\* : p < 0.001 )

일간 服用한 後에는 12.85±4.68 μg/dl로 服用前에 比하여 모두 有意性(P<0.01)있게 減少하였다(Table V).

2) 柳氏歸脾湯 服用群에서 ACTH,cortisol值의 變化 柳氏歸脾湯 服用前 ACTH值는 29.10±16.97 pg/ml 이었으며, 10일간 服用한 後에는 25.21±15.58pg/ml로 服用前에 比하여 減少하였으며, 20일간 服用한 後에는 19.12±13.27pg/ml로 服用前에 比하여 有意性(P<0.05) 있게 減少하였다.

柳氏歸脾湯 服用前 cortisol值는 17.94±3.94 μg/dl이 었으며, 10일간 服用한 後에는 13.46±3.69 μg/dl, 20 일간 服用한 後에는 12.79±5.03 μg/dl로 服用前에 比하여 모두 有意性(P<0.001)있게 減少하였다(Table VI).

#### IV. 考 察

神은 精神이며 人體生命活動의 外在表現으로 思惟, 意識, 精神活動等を 意味한다.<sup>3,15)</sup> 「本神篇」<sup>21)</sup>에 “故生之來 謂之精 兩精相搏 謂之神”, 「平人絕穀篇」<sup>21)</sup>에 “故神者 水穀之精氣也”라 하여 先天的으로 받은 神을 後天的으로 調養하여 精神活動을 維持한다.<sup>3)</sup> 「大惑論」<sup>21)</sup>에 “心者 神之舍”, 「靈蘭秘典論」<sup>21)</sup>에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이라하여 神은 精神이며 精神的 感情의 表現으로서 心이 主宰한다.<sup>39)</sup>

宋代 陳(1174)<sup>27)</sup>은 모든 疾患의 發病原因을 三因으로 分類하였으며, 精神疾患은 주로 內因이 많으나 外因도 있으며<sup>3)</sup> 人體의 內外的 刺戟要因에 의한 變化를 氣의 變化로 表現하여<sup>1,14,15,57)</sup> 怒하면 氣上하고, 喜하면 氣緩하고, 思하면 氣結하고, 悲하면 氣消하고, 恐하면 氣下하고, 驚하면 氣亂하고, 寒하면 氣收하고, 熱하면 氣泄한다<sup>21)</sup>고 하였다. 특히 情緒의 變化인 七情의 便乘이 人體五臟에 不利한 影響을 주는데 喜는 心을 傷하게 하고, 怒는 肝을 傷하게 하고, 思는 脾를 傷하게 하고, 憂는 肺를 傷하게하고, 恐은 腎을 傷하게 한다<sup>21)</sup>고 하였다.“百病 皆生於六氣”<sup>24)</sup>라 하여 外感六淫이 人體에影響을 미치고, 情志의 內傷은 七情(喜,怒,憂,思,悲,驚,恐)의 波動이 極烈하거나 오랜동안 지속되면 多様な 身體的 變化를 일으켜 疾病이 發生한다.<sup>1,3,14,15,53,57)</sup> 「本神篇」<sup>21)</sup>에 “怵惕思慮傷心, 憂愁不解傷脾, 悲哀動中傷肝, 喜樂無極傷肺, 盛怒不止傷腎”, 「疏五過論」<sup>21)</sup>에 “暴樂暴苦 始樂後苦 皆傷精氣 暴怒傷陰 暴喜傷陽”, “當貴後賤 雖不中邪 病從内生 名曰脫營 當富後貧 名曰失精”이라하여 個人的 精神狀態, 生活狀態, 社會的 要因<sup>64)</sup>에 의하여도 精神疾患이 發生한다고 하였다.

肝의 주된 生理機能은 疏泄機能으로 情緒活動과 關聯이 있어 七情이 損傷되어 五臟의 機能이 失調되면 肝에 많은 影響을 미친다. 肝의 疏泄機能이 正常이면 精神이 舒暢하며 反對로 肝의 疏泄機能이 失調되면 情緒는 抑鬱되는데 이는 肝臟의 機能이 人體의 精神과

情緒變化에 影響을 주는 一面이다. 또 다른 面으로 精神刺戟 즉 內部的 大怒 혹은 情緒의 過度한 抑鬱等으로 疏泄機能이 失調되면 肝氣鬱結등의 病變이 나타난다.<sup>12,60)</sup> 「本神篇」<sup>21)</sup>에 “心藏脈 脈舍神”, 「平人絕穀篇」<sup>21)</sup>에 “血脈和則精神乃居”라하여 營血은 精神活動의 物質的基礎로 營血의 盛衰消長은 精神과 意識에 變化가 온다. 精神活動의 過重은 血虛를 誘發하고 血虛 또한 精神疾患을 誘發한다<sup>15)</sup>. 「邪客篇」<sup>21)</sup>에 “心者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口問篇」<sup>21)</sup>에 “故悲哀憂愁則 心動 心動則 五臟六腑皆搖”라 하여 各種 精神疾患은 心을 代表的인 臟腑機能으로 삼아 五臟의 機能을 調節함으로써 精神疾患을 治療한다.<sup>3,15)</sup>

스트레스의 概念은 Cannon(1932)<sup>79,80)</sup>에 의해 導入되어 Selye(1956)<sup>96)</sup>에 의해 一般화된 概念으로 스트레스를 有機體에 負擔을 주는 各種 有機的刺戟이나 心理的刺戟으로 보기도하고, 適應을 要求하는 모든 刺戟에 대한 有機體의 反應으로 보기도 한다. 혹은 스트레스를 사람과 環境의 相互作用에 의해 自身の 安寧이 威脅받는 것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sup>29,49)</sup> 心理的인 事件들도 物理的인 스트레스 要因과 同一한 스트레스 反應을 보이는데,<sup>36)</sup> 스트레스는 精神疾患에 대한 影響以外에도 身體疾患 또는 內分泌機能에도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0,32,37)</sup> 스트레스에 따른 內分泌系의 機能變化는 有機體의 反應時期에 따라 反應局面的 差異가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有機體의 즉각적인 反應은 視床下部-交感神經系를 통해, 中間反應은 視床下部-副腎髓質軸에 의해, 長期間의 反應은 視床下部-腦下垂體-副腎皮質軸, 視床下部-腦下垂體-甲狀腺軸等에 의하여 모든 身體器官이 影響을 받는다.<sup>32,50)</sup>(附錄4).

成人初期 男子(20-29세)들은 考試나 入試등 중요한 試驗 및 學校問題등이 狀態不安과 特性不安에 가장 많은 影響을 주는 生活事件要因이 된다고 하였는데<sup>49)</sup> 本 研究 對象群인 行政, 司法考試 研究班員들의 平均나이 는 26歲로 不安點數가 正常人과 比較하여 有意하게 높았다. 不安은 흔히 스트레스와 同義語로 쓰고 있으며 不安狀態에서 個人的 스트레스 知覺은 더욱 增加한다<sup>49)</sup>고 하였는데 本 研究에서도 不安點數와 스트레스 知覺點數는 有意한 相關關係를 보였다. 이는 本 研究 對象群이 過多한 競爭이 要求되는 考試에대한 心理的

不安感으로 精神的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示唆한다.

本 研究 對象群의 平均 考試準備 期間은 2년반으로 長期間의 精神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長期間의 스트레스에는 副腎皮質 호르몬과 甲狀腺 호르몬이 影響을 받고<sup>32,50)</sup>(附錄 4), 또한 大學生들은 試驗과 學業의 스트레스로 血中 脂質이 增加 한다<sup>85,98)</sup>고 하여 ACTH, cortisol, TSH, T<sub>4</sub>, 총 cholesterol과 triglyceride를 研究指標로 삼았다.

文(1986)<sup>43)</sup>과 吳(1989)<sup>58)</sup>는 歸脾湯이, 金(1989)<sup>40)</sup>은 加味逍遙散이 淸귀의 物理的 스트레스에 대하여 抑制效果가 認定된다고 報告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臨床研究를 通하여 柳氏逍遙散과 柳氏歸脾湯의 心理的 스트레스에 대한 抗 스트레스효과를 究明하고자 하였다. 考試準備로 心理的 不安과 精神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對象群에게 辨證設問調查(附錄1)와 四診을 施行하여 肝氣鬱結證에는 柳氏逍遙散을, 心血不足證에는 柳氏歸脾湯을 服用시켰다.

宋(1983)<sup>53)</sup>은 情緒的 stressor는 人體의 氣循環에 影響을 미치어 生理的 變化를 招來한다고 하였고, 文(1987)<sup>44)</sup>은 西洋醫學에서 말하는 stressor는 東醫學의 外因(六氣), 內因(七情), 不內外因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stress反應은 東醫學에서는 氣의 變化로 觀察한다고 하였고, 嚴(1992)<sup>57)</sup>은 氣의 變化는 호르몬에서 觀察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宋(1983)<sup>41)</sup>, 金(1988)<sup>42)</sup>, 金(1989)<sup>35)</sup>은 實驗動物에 各種 物理的 刺戟 및 心理的 葛藤모형을 만들어 尿中 catecholamine 또는 行動變化, 體重減少, 水分攝取量, 胃潰瘍을 指標로 抗스트레스 效果를 立證하였으며, 臨床報文으로는 李(1992)<sup>63)</sup>는 溫膽湯, 四物安神湯, 柴胡疏肝散을 肥滿 및 스트레스 疾患에 應用할 수 있다고 報告하였다.

逍遙散은 宋代 陳(1107)<sup>26)</sup>이 太平惠民和劑局方에 처음 收載한 處方으로 血虛勞倦, 五心煩熱, 肢體疼痛, 頭目昏重, 心忪類赤, 口燥咽乾, 發熱盜汗, 減食嗜臥及 血熱相搏, 月水不調, 臍腹脹痛, 寒熱如瘧, 室女血弱陰虛, 榮衛不和, 痰嗽潮熱, 肌體羸瘦, 漸成骨蒸等を 治한다고 하였고, 逍遙散基本方에 牡丹皮, 梔子를 가하여 肝脾血虛, 肝氣鬱結을 비롯한 全身症狀 및 諸神經症을 治療하는 治方<sup>1,2,13,15,18)</sup>으로 應用되고 있다. 構成藥物에 대



한 效能을 살펴보면 柴胡는 疏肝解鬱, 白芍藥은 平抑肝陽, 當歸는 補血和血, 麥門冬은 滋陰清熱, 白朮은 補脾益胃, 燥濕和中, 白茯苓은 滲濕利水, 寧心安神, 甘草는 補脾益氣, 調和諸藥, 薄荷는 疏風散熱, 生薑은 開鬱散氣 한다.<sup>7,8,16</sup> 藥理作用은 柴胡는 脂質代謝改善, 抗스트레스作用<sup>31</sup>, 甘草는 corticosterone 分泌를 抑制<sup>73</sup>, 脂質代謝改善<sup>16</sup>, 當歸는 內分泌機能에 影響을 준다.<sup>16</sup>

本 研究에서는 肝氣鬱結로 判斷되는 對象群에 逍遙散 基本方에 解酒醒脾, 止腸風下血 作用의 葛花<sup>16,75</sup>, 平肝解鬱作用의 白疾藜<sup>7,8,16</sup>를 加味한 柳氏逍遙散을 使用하였다. 肝氣鬱結의 主證은 脇肋脹痛 右側較重, 胸悶, 口苦而乾, 善太息, 急躁易怒, 矢氣頻多, 噯氣, 吞酸, 頭痛, 便秘와 泄瀉가 高대로 나온다, 脈弦, 舌苔薄黃等으로 限하였다<sup>3,12,23,25</sup>(附錄1).

歸脾湯은 宋代 嚴(1253)<sup>20</sup>이 濟生方에 처음으로 收載한 處方으로 思慮過度로 心脾를 傷하여 心脾血虛로 인한 健忘, 怔忡을 治한다고 하였다. 危(1337)<sup>22</sup>는 思慮로 脾를 傷하여 脾가 統血을 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血病을 治療한다고 하였으며, 그 후 心身病等 神經精神疾患에 應用되어온 治方이다.<sup>1,13,15</sup> 構成藥物은 人蔘, 黃芪는 補氣 健脾하고, 當歸, 龍眼肉은 養血 和營하며, 白朮, 木香은 健脾理氣하고, 白茯苓, 遠志, 酸棗仁은 養心安神하며, 甘草, 生薑, 大棗는 和胃健脾하는 效能을 나타낸다.<sup>7,8,16</sup>

本 研究에서는 心血不足으로 判斷되는 對象群에 歸脾湯에서 對象群의 一般性を 考慮하여 人蔘을 除去하고, 開竅安神, 祛痰作用의 石菖蒲<sup>7,8,16</sup>, 解酒醒脾, 止腸風下血 作用의 葛花<sup>16,75</sup>, 理氣和胃 作用의 紫檀香<sup>7,8,16</sup>을 加味한 柳氏歸脾湯을 使用하였다. 心血不足의 主證은 心煩, 健忘, 易驚不安, 不眠, 多夢, 頭暈, 倦怠無力, 精神疲勞, 飲食無味, 便溏面白, 舌質淡薄, 齒痕, 脈細弱等으로 限하였다<sup>3,12,23,25</sup> (附錄1).

脂質은 身體組織細胞의 重要 構成要素인 同時에 그 代謝異常은 動脈硬化等を 誘發하여 狹心症, 心筋硬塞症, 腦卒症, 末梢血管疾患과 關聯이 있다.<sup>34,52,71</sup> 血中脂質이 情緒狀態에 따라 影響을 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것으로<sup>78</sup>, 이 중 血中콜레스테롤은 스트레스에 敏感하게 反應하여 8%-65% 上昇하는 것으로 報告되었

다.<sup>82</sup> Thomas 등(1958)<sup>98</sup>, Grundy 등(1959)<sup>85</sup>은 醫科大學生들은 시험기간 동안에, Wolf 등(1962)<sup>100</sup>은 일정기간동안 경험했던 생활 스트레스의 과다에 따라 콜레스테롤이 모두 增加한다고 하였다. 또한 Carruthers 등(1976)<sup>81</sup>은 長時間의 비행기 旅行으로, 金 등(1989)<sup>37</sup>은 생활 스트레스량이 많아지면 모두 triglyceride가 增加한다고 하였다. 스트레스로 血中콜레스테롤의 增加는 스트레스 刺戟에 의하여 放出되는 스트레스 hormone인 epinephrine, norepinephrine, glucagon, ACTH, glucocorticoids 등이 體內脂肪細胞에 作用하여 脂肪分解를 促進하기 때문이다.<sup>32,34,45,70</sup>(附錄5). 柳(1991)<sup>61</sup>는 肝中에 대한 臨床 研究에서 加味歸脾湯 服用으로 총 cholesterol, triglyceride值가 服用後 3주, 6주後에 各各 有意性있는 減少를 보였다는 報告를 하였다. 本 研究에서 柳氏逍遙散, 柳氏歸脾湯 服用群 모두 총 cholesterol, triglyceride值가 服用 10일과 20일후에 服用前과 比較하여 有意性있는 減少를 보였다(Table I, II, Fig. 1,2). 이는 考試準備로 心理的 不安과 精神的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對象群이 柳氏逍遙散, 柳氏歸脾湯을 服用한 結果 心理的 不安과 精神的 스트레스가 다소 解消되어 총 cholesterol과 triglyceride가 減少하였다고 思料된다. 또한 柳氏逍遙散, 柳氏歸脾湯의 服用으로 血中 ACTH와 cortisol含量이 減少하였으며(Table V, VI, Fig. 5,6) ACTH와 cortisol의 脂肪分解作用이 減退함으로 총 cholesterol과 triglyceride가 減少되었다고 思料된다 (附錄5).

甲狀腺 호르몬은 스트레스에 關連된 호르몬으로<sup>32,50</sup> 組織의 成長, 發育, 에너지 生成 및 體內 物質의 轉換에 關係한다.<sup>4,5</sup> 甲狀腺 호르몬의 分泌는 視床下部—腦下垂體—甲狀腺軸에 의해 調節되는데<sup>36,50,65,72</sup>(附錄4), 情緒的인 要因에 의해 甲狀腺 分泌가 促進되고 精神障碍 특히 情動障碍와 明確한 關聯性이 있다.<sup>38,65,72</sup> 甲狀腺 病患은 東醫學의 癭病과 類似하며<sup>47</sup> 癭病의 原因은 內傷七情으로 인하여 肝鬱氣滯, 肝火亢盛, 心陰虧損, 痰濕凝結된 所致로 보았다.<sup>13,17-19</sup> 孫(1986)<sup>51</sup>은 逍遙散 加減方이 sodium levothyroxine投與로 誘發된 癭病의 甲狀腺 亢進症에서 T<sub>3</sub>, T<sub>4</sub> 含量이 有意하게 減少한 反面, TSH 含量은 增加 하는 傾向을 보인다고 했다. 本 研究에서 柳氏逍遙散, 柳氏歸脾湯 服用群 모두

TSH는 有意性은 없지만 增加하였으며, T<sub>4</sub>는 服用한 10일후에 有意性있는 增加를 보였다(Table III, IV, Fig. 3, 4). 이는 柳氏逍遙散은 肝氣鬱結, 柳氏歸脾湯은 心血不足으로 인한 心理的 不安과 精神的 스트레스에 대하여 抗스트레스 效果가 있어 갑상선 호르몬에 變化가 온다고 思料된다. Wilber 등(1969)<sup>99</sup>은 glucocorticoids를 投與하면 TSH分泌가 減少되고, Nicoloff 등(1970)<sup>92</sup>은 hydrocortisone을 投與하면 thyroidal iodine과 TSH 分泌가 抑制된다고 하였다. ACTH와 cortisone은 TSH 分泌를 抑制하여 甲狀腺 機能을 減退시켜 結果적으로 T<sub>4</sub>가 減少한다.<sup>86,90,93</sup> 本 研究에서는 柳氏逍遙散, 柳氏歸脾湯의 服用으로 血中ACTH와 cortisol含量이 有意하게 減少한 結果로 (Table V, VI, Fig. 5, 6) TSH와 T<sub>4</sub>가 增加하였다고 思料된다.

Selye의 一般適應症候群은 主로 物質的인 스트레스에 대한 反應에 關與하지만 心理的인 스트레스도 역시 ACTH와 corticosteroids 分泌를 刺戟한다.<sup>56</sup> 스트레스에 의한 血中 cortisol의 增加는 視床下部—腦下垂體—副腎皮質軸에 의하여 分泌되는데<sup>28,36,69,88</sup>(附錄4), cortisol은 탄수화물, 蛋白質, 脂肪代謝, 電解質과 水分代謝의 調節 및 抗炎症 作用을 하고 持續的이고 過度한 스트레스 反應에 의해 일어날수 있는 身體의 損傷을 豫防한다<sup>4,5</sup>. 鄭(1987)<sup>67</sup>, 宋(1988)<sup>54</sup>, 趙(1988)<sup>68</sup>는 鍼과 灸의 刺戟에 의하여 血漿內의 ACTH 및 cortisol濃度가 變動된다고 報告하였는데 이는 鍼灸도 一種의 物理的인 스트레스로 스트레스 刺戟에 대한 生體의 反應으로 血中 ACTH 및 cortisol濃度에 變化가 온다고 思料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corticosteroids의 分泌가 增加되고 그 結果 免疫機能이 減少하는데<sup>28</sup>, Jemmott 등(1983)<sup>87</sup>, Kiecolt-Glaser 등(1984)<sup>89</sup>은 醫科 大學生들은 試驗과 學業스트레스로 免疫機能이 減少한다고 하였다. 本 研究에서 柳氏逍遙散, 柳氏歸脾湯 服用群 모두 cortisol은 服用 10일 後부터 有意性 있는 減少를 보였고, ACTH는 20일後에 有意性 있는 減少를 보였다(Table V, VI, Fig. 5, 6). 이는 考試準備로 心理的 不安과 精神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對象群이 柳氏逍遙散과 柳氏歸脾湯을 服用한 結果 柳氏逍遙散과 柳氏歸脾湯의 抗스트레스 效果로 ACTH와 cortisol의 分泌가 減少되었다고 思料된다. Fredrickson 등(1952)<sup>84</sup>은

cortisone治療를 하는 동안에는 cholesterol이 增加하는데 이는 甲狀腺 호르몬의 作用이 減少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柳氏逍遙散, 柳氏歸脾湯의 服用으로 血中 ACTH와 cortisol含量이 減少함에 따라 甲狀腺 호르몬에 影響을 주어 TSH, T<sub>4</sub>值가 增加하였고, 또한 血中脂質에도 影響을 주어 총 cholesterol과 triglyceride值가 減少하였다. 柳氏逍遙散, 柳氏歸脾湯을 服用한 20일후에 血中 ACTH, cortisol含量이 10일후보다 더욱 減少함에 따라 TSH는 增加하는데 반대로 T<sub>4</sub>가 減少하고 총 cholesterol과 triglyceride值가 增加하는 理由는 追後 더욱 研究해 볼 問題로 생각되어진다.

以上の 모든 結果를 考察해 볼때 柳氏逍遙散은 肝氣鬱結, 柳氏歸脾湯은 心血不足으로 인한 心理的 不安과 精神的 스트레스에 대하여 抗스트레스 效果가 있다고 思料된다.

## V. 結 論

柳氏逍遙散과 柳氏歸脾湯 煎湯液을 行政, 司法考試 準備로 心理的 不安과 精神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對象群에 3주간에 걸쳐 服用케하여 服用前後에 血中脂質變化와 甲狀腺 호르몬, 副腎皮質 호르몬의 含量變動을 測定한 結果 다음과 같은 知見을 얻었다.

1. 對象群의 不安點數는 平均 41.00±7.84으로 正常人群 보다 有意하게 높았고(p<0.05), 스트레스 知覺 點數는 平均 28.62±9.00이었다, 不安點數와 스트레스 知覺 點數는 有意한 相關性을 보였다(p < 0.001).
2. 血清脂質에서 柳氏逍遙散, 柳氏歸脾湯 服用群 모두 총 cholesterol, triglyceride值가 10일간 服用한 後부터 有意性 있는 減少를 보였다.
3. 甲狀腺 호르몬에서 柳氏逍遙散, 柳氏歸脾湯 服用群 모두 TSH值는 增加하는 傾向을 보였고, T<sub>4</sub>值는 10일간 服用한 後에 有意性있는 增加를 보였다.
4. 副腎皮質 호르몬에서 柳氏逍遙散, 柳氏歸脾湯 服用群 모두 cortisol值는 10일간 服用한 後부터 有意性있는 減少를 보였고, ACTH值는 20

일간 服用한 後에 有意性있는 減少를 보였다.

이상의 結果로 미루어 柳氏逍遙散은 肝氣鬱結, 柳氏歸脾湯은 心血不足으로 인한 心理的 不安과 精神的 스트레스에 대하여 抗스트레스 效果를 認定할 수 있다고 思料된다.

### 參 考 文 獻

1. 金相孝: 東醫神經精神科學, 서울, 杏林出版社, pp. 62, 63, 259, 260, 277, 278, 334, 335, 345, 1980.
2. 金定濟·金秉雲: 東醫肝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p. 215-216, 288, 307, 1978.
3. 柳熙英: 東醫精神科學, 서울, 慶苑文化社, pp. 6, 24, 25, 51, 74-77, 1975.
4. 閔獻基: 臨床內分泌學, 서울, 高麗醫學, pp. 29, 44-46, 130-140, 294-301, 1990.
5. 성호경·이상돈: 생리학, 서울, 의학문화사, pp. 350-352, 356-364, 592-594, 1991.
6. 保健社會部: 韓洋方傷病分類記號對照表, 大韓韓醫師協會, pp. 7-8, 1987.
7. 申佶求: 申氏本草學(各論), 서울, 壽文社, pp. 9, 13, 17, 56, 68, 81, 86, 100, 113, 129, 229, 243, 246, 357, 515, 574, 593, 710, 719, 1988.
8. 辛民教: 原色臨床本草學, 서울, 南山堂, pp. 169, 172, 174, 176, 222, 223, 225, 232, 250, 251, 255, 368, 370, 374, 387, 390, 528, 538, 539, 659, 1986.
9. 李三悅·鄭允燮: 臨床病理檢査法,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pp. 208-213, 223-225, 1987.
10. 이상인·지형준·신민교·안덕균: 韓方治療劑의 標準化規格 統一研究, 保健社會部, pp. 9, 58, 81, 87, 114, 152, 1981.
11. 李鎔九: 統計學原論, 서울, 栗谷, pp. 217-221, 270-276, 313-316, 1992.
12. 鄭遇烈: 韓方病理學, 삼진사, pp. 118, 119, 133, 134, 202-204, 216, 217, 1988.
13.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p. 98, 565, 626, 1976.
14. 黃義完: 心身症, 서울, 杏林出版社, pp. 24-29, 43-50, 1985.
15. 黃義完·金知赫: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pp. 53, 56, 107, 651, 846, 847, 858, 1987.
16. 江蘇新醫學院: 中藥大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 101, 354, 570, 613, 636, 656, 672, 707, 877, 1025, 1029, 1275, 1598, 1599, 1835, 2038, 2307, 2535, 2849, 2669, 1977.
17. 上海中醫學院: 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 103-105, 1982.
18. 上海中醫學院: 中醫內科學, 香港, 商務印書館, pp. 494-503, 1975.
19. 巢元方: 諸病源候論, 台中, 國際書局, p. 531, 1976.
20. 嚴用和: 濟生方(四庫全書 第743冊), 麗江出版社, p. 487, 1989.
21.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21, 28, 113, 247, 290, 291, 351, 362, 477, 1986.
22. 危亦林: 世醫得效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236, 1990.
23. 長春中醫學院: 中醫診斷學, 吉林人民出版社, pp. 137-141, 157-160, 1984.
24. 程曦: 醫家四要卷2, 病氣約論, 上海, 千頃堂, p. 1.
25. 趙承祐 外: 臟腑証治, 天津科學技術出版社, pp. 89-163, 1981.
26. 陳師文 外: 太平惠民和劑局方(四庫全書, 第 741 冊), 麗江出版社, p. 653, 1989.
27. 陳言: 三因極一病証方論(四庫全書, 第 743冊), 麗江出版社, pp. 170-172, 1989.
28. 강병조: 스트레스와 精神神經免疫學, 한양대학교 정신건강 연구소, 제10집:

- 65-80, 1991
29. 고경봉: 정신신체장애환자들의 스트레스지각, 신경정신의학 27(3): 514-524, 1988.
  30. 권영준·정한용·한선호: 정신과 입원환자의 정신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8(6): 961-971, 1989.
  31. 김공수·유광석·한중현: 韓方藥의 藥理, 원광한 의학 3(1):197-209, 1993.
  32. 김광수·유태열·김중은: 스트레스의 정신신경내 분비반응: 우울장애와의 관련성,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제 10집: 81-96, 1991.
  33. 金德鎬 외 4人: 肝疾患 患者에 對한 臨床的 觀察 (의료보험처방을 중심으로), 대한한의 학회지 8(2): 14-23, 1987.
  34. 김덕화: 지방질섭취와 비만증, 대한의학 협회지 31(9): 933-935, 1988.
  35. 金斗煥: 丹蔘補血湯, 加味丹蔘補血湯의 抗心理 的 스트레스 效果에 關한 實驗的 研究,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大學院, 1989.
  36. 金相泰: 視床下部홀몬과 神經傳達物質, 精神醫學報 7(9): 285-296, 1983.
  37. 김영철·정향균·이시형: 일반성인에서의 생활스 트레스가 정신증상 및 신체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28(2): 282-291, 1989.
  38. 김영철·이시형: 갑상선기능과 정신증상의 상관 관계, 신경정신의학 27(3): 581-584, 1988.
  39. 金恩善: 腦와 心, 神의 相關性에 對한 文獻的 研究, 大邱韓醫科大學 大學院, 1991.
  40. 金點珠: 加味逍遙散의 抗stress效果에 對한 實驗 的 研究,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大學 院, 1989.
  41. 宋點植: 情緒變化와 膽과의 相關性에 關한 實驗 的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3.
  42. 金知赫: 天王補心丹加減方의 抗스트레스 效果에 關한 實驗的 研究, 慶熙大學校 韓醫科 大學 大學院, 1988.
  43. 文流模: 歸脾湯의 抗스트레스 效果에 對한 實驗 的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大學 院, 1986.
  44. \_\_\_\_\_: Stress에 關한 東西 醫學的 考察, 大田 大學論文集6(2): 301-305, 1987.
  45. 朴錫璉: 스트레스 병의 발생기전, 최신의학 35(7): 25-36, 1992.
  46. 朴恩貞: 歸脾湯과 歸脾湯加味方이 마우스의 過 敏反應 및 免疫細胞의 機能에 미치는 影響, 圓光大學校 大學院, 1990.
  47. 朴宰賢: 癩病과 甲狀腺疾患과의 東西醫學的 比 較考察, 東西醫學 vol 15(2): 33-45, 1990.
  48. 裴文弘: 加味逍遙散이 白鼠肝臟의 사염화탄소 中毒에 미치는 影響, 圓光大學教 大學 院, 1983.
  49. 백기청·홍강의: 스트레스요인으로서의 생활사건 과 통제소재 및 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6(1): 75-111, 1987.
  50. 백인호: Stress에 따른 생물학적 반응, 한양대학 교 정신건강 연구소, 제 10집: 51-64, 1991.
  51. 孫淑英: 逍遙散加減方의 sodium levothyroxine 投與로 誘發된 원위의 甲狀腺 機能亢 進症에 미치는 影響, 慶熙大學校 大 學院, 1986.
  52. 손호영: 지질대사, 대한내분비학회지 6(3): 203-211, 1991.
  53. 송점식: Stressor에 따른 신체생리반응에 대한 동의학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4(2): 43-47, 1983.
  54. 宋淙圭: 鍼刺가 慢性腰痛의 血漿內  $\beta$ -endorphin, ACTH 및 cortisol含量에 미치는 影響, 圓光大學教 大學院, 1988.
  55. 안재형·이재우·이길홍: 정신과 입원환자의 정신 사회적 스트레스와 불안성향간의 관

- 계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9(5): 1139-1154, 1990.
56. 양병환: 스트레스와 정신신경내분비학, 한양대학교 정신건강 연구소, 제3집: 81-89, 1985.
- 57.嚴賢燮: 情緒(七情)와 stress의 關係에 關한 理論的 研究, 東西醫學 vol. 17(4): 5-20, 1992.
58. 吳尙勳: 歸脾湯의 五志相勝爲治效果에 關한 實驗的 研究, 慶熙韓醫大 論文集 Vol. 12: 433-451, 1989.
59. 王성근: 정신과 외래환자의 self-rating anxiety scale에 의한 불안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7(2): 179-191, 1978.
60. 柳道坤 外 2人: 肝機能에 對한 東西醫學的 考察, 大韓東醫病理學會誌 제2권: 61-69, 1987.
61. 柳泳秀: 加味桂芎湯 및 加味歸脾湯의 臨床效能에 關한 研究, 圓光大學教 大學院, 1991.
62. 李東鎭: 歸脾湯煎湯液이 睡眠時間 및 鎮痛作用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研究, 慶熙韓醫大 論文集 vol.2: 163-170, 1979.
63. 李相龍: 溫膽湯과 四物安神湯 및 柴胡疏肝散이 肥滿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影響,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3(1): 25-45, 1992.
64. 李錫駿: 脫營失精의 文獻的 考察, 圓光大學教 大學院, 1986.
65. 이창인: 갑상선 기능과 정신장애, 서울의대정신의학 11(2): 139-156, 1986.
66. 鄭倬弼: 歸脾湯의 煎湯液이 家兔血壓 및 白鼠肝 TBA值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慶熙韓醫大 論文集 vol.2: 135-144, 1979.
67. 鄭炫國: 足三里艾灸가 人體의 血漿 catecholamine, renin, cortisol 및  $\beta$ -endorphin에 미치는 影響, 圓光大學 教 大學院, 1987.
68. 趙起東: 解谿, 崑崙 鍼刺戟이 人體의 血漿  $\beta$ -endorphin, ACTH 및 cortisol濃도에 미치는 影響, 圓光大學教 大學院, 1988.
69. 조수철: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계와 정신장애와의 관계, 정신의학보 7(1): 2-14, 1983.
70. 진항기·이태준: 소음 및 진동 스트레스가 흰쥐 순환호산구와 혈청지질농도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 대학 의학부 논문집 23:135-142, 1972.
71. 채범식: 지방질 섭취와 리포단백질 대사, 대한 의학협회지 31(9): 925-932, 1988.
72. 한기석·정영조: 주요 정신질환에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의 진단적 의의, 신경정신의학 29(6): 1329-1339, 1990.
73. 韓宗鉉: 갑초의 면역조절작용에 관한 연구, 全州 又石大學大學院, 1991.
74. 許珍榮: 흰쥐의 回轉能에 關한 逍遙散의 效果, 大邱韓醫科大學 大學院, 1986.
75. 洪天杓: 葛花의 效能에 關한 實驗的 研究, 慶熙 大學校 大學院, 1987.
76. Broughton, A. : *Application of adrenocorticotropin assays in a routine clinical laboratory*,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pathology 64: 618-624, 1975.
77. Beck, J. R.: *Laboratory decision science applied to chemometries: strategic testing of thyroid funtion*, Clin. Chem. 32(9): 1707-1713, 1986.
78. Bogdonoff, M. D. and Nichols, C. R. : *Psychogenic effects on lipid mobilization, in handbook of physiology: adipose tissue*, edited by A. Renoid, G. Cahill, Washington DC. American physiological society, pp. 613-616, 1965.

79. Cannon, W.B.: *The secretion of the adrenal glands during emotional excitement*, Science, vol 33: 907, 1911.
80. \_\_\_\_\_: *The wisdom of the bod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pp. 19-40, 1963.
81. Carruthers, M., Arguelles, A. E. and Mosovich, A. : *Man in transit: biochemical and physiological changes during intercontinental flights*, Lancet: 977-981, 1976.
82. Dimsdale, J. E. and Herd, J. A. : *Variability of plasma lipids in response to emotional arousal*, Psychosom. Med. 44(5): 413-430, 1982.
83. Foster, L. B. and Dunn, R. T. : *Single-antibody technique for radio-immunoassay of cortisol in unextracted serum or plasma*, Clin. Chem. 20(3): 365-368, 1974.
84. Fredrickson, D.S., Forsham, P.H. and Thorn, G.W. : *The effect of massive cortisone therapy on measurements of thyroid function*, J. Clin. Endocrinol. Metab. 12: 541-553, 1952.
85. Grundy, S. M. and Griffin, A. C. : *Relationship of periodic mental stress to serum lipoprotein and cholesterol levels*. J.A.M.A. 171: 1794-1796, 1959.
86. Ingbar, S. H. and Freinkel, N. : *ACTH, cortisone and the metabolism of iodine*, Metabolism 5: 652-666, 1956.
87. Jemmott, J. B., Borysenko, J. Z., Borysenko, M. et al. : *Academic stress, power motivation and decrease in secretion rare of salivary secretory immunoglobulin A*. Lancet: 1400-1404, 1983.
88. Axelrod, J. and Reisine, T. D. : *Stress Hormones: their interaction and regulation*, Science 224: 452-418, 1984.
89. Kiecolt-Glaser, J. K., Garner, W., Speicher, C. et al. : *Psychosocial modifiers of immunocompetence in medical students*. Psychosom. Med. 46(1): 7-14, 1984.
90. Kumar, R. S., Musa, B. U., Appleton, W. G. et al. : *Effect of prednisone on thyroxine distribution*, J. Clin. Endocrinol. Metab. 28:1335-1340, 1968.
91. Linn, M. W. : *A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GARS) scale*, Int. J. Psychiatry in Med. 15(1): 47-59, 1985.
92. Nicoloff, J.T., Fisher, D. A. and Appleman, M. D. : *The role of gluco- corticoids in the regulation of thyroid function in man*, J. Clin. Invest. 49:1992-1929, 1970.
93. Otsuki, M., Dakoda, M. and Baba, S. : *Influence of glucocorticoids on TRF-induced TSH response in man*, J. Clin. Endocrinol. Metab. 36: 95-102, 1973.
94. Penny, M. D. and O'sullivan, D. J. : *Total or free thyroxin as a primary test of thyroid function*, Clin. Chem. 33(1): 170-171, 1987
95. Rogers, M.P., Dubey, D. and Reich, P. : *The influence of the psyche and the brain on immunity and disease susceptibility: a critical view*, Psychosom. Med. 41(2): 147-163, 1979.

96. Selye, H. :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pp. 1-50, 1956.
97. Siedel, J., Hägele., E. O., Ziegenhorn, J. et al.: *Reagent for the enzymatic determination of serum total cholesterol with improved lipolytic efficiency*, Clin. Chem. 29(6): 1075-1080, 1983.
98. Thomas, C. B. and Muphy, E. A. : *Further studies on cholesterol levels in the Johns Hopkins medical students: the effect of stress at examinations*, J.Chronic Disease 8(6): 661-668, 1958.
99. Wilber, J. F. and Utiger, R. D. : *The effect of glucocorticoids on thyrotropin secretion*, J. Clin. Invest. 48:2096-2103, 1969.
100. Wolf, S., McCabe, W. R., Yamamoto, J. et al.: *Changes in serum lipids in relation to emotional stress during rigid control of diet and exercise*, Circulation 26: 379-387, 1962.
101. Zung, w. w. k. : *A rating instrument for anxiety disorders*, Psychosomatics 12(6): 371-379, 1971.
102. 伊藤 忠信 外 5人: 마우스의回轉 카코運動 對 する 加味逍遙散 および 加味歸脾湯 の 效果 の 投與 時刻 による 相違, 和漢醫藥學會誌 3(1): 16-23, 1986.
103. 櫻川 信男·鹽崎 有宏: 加味歸脾湯 の 마우스 免疫能 に 及ぼす 影響, 和漢醫藥學會誌 8: 492-493, 1991.
104. 洪谷 健 外 2人: 歸脾湯 關する 日中 における 臨床應用 的 比較 考察, 和漢醫藥學會誌 8: 514-515, 1991.

= ABSTRACT =

## A Clinical Study on the Anti-Stress Effects by *Lyu's Soyosan*(柳氏逍遙散) and *Lyu's Kwipithang* (柳氏歸脾湯)

Sek-Jun Lee, Heui-Yeong Lyu  
Won Kwang University  
Sang Ji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verify clinical effects of *Lyu's Soyosan*(柳氏逍遙散) and *Lyu's Kwipithang* (柳氏歸脾湯). They were prescribed to the experimental student group suffering from mental stress and annoyed by psychological instability. From the biochemical examination before and after medication, we measure the amount of hormonal variation in thyroid hormone(TSH, T<sub>4</sub>) and adrenocortical hormone(ACTH, cortisol).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of self-rating anxiety scale(SAS) in test group is  $41.00 \pm 7.84$ . This value is statistical significant and higher than the one of normal person(age 20-39). The average of a global assesment of recent stress(GARS) scale is  $28.62 \pm 9.00$ . There is statistical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AS and GARS ( $p < 0.001$ ).

2. Both *Lyu's Soyosan*(柳氏逍遙散) and *Lyu's Kwipithang* (柳氏歸脾湯) groups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of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 in serum lipid after ten day medication.

3. It is observed that *Lyu's Soyosan*(柳氏逍遙散) and *Lyu's Kwipithang* (柳氏歸脾湯) groups have increasing tendency of TSH.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of T<sub>4</sub> was found in two groups

after ten day medication.

4. It is observed that *Lyu's Soyosan*(柳氏逍遙散) and *Lyu's Kwipithang* (柳氏歸脾湯) group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of serum cortisol level after ten day medication. Both gorup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of plasma ACTH level after twenty day medication.

From these results, It is verified that both *Lyu's Soyosan*(柳氏逍遙散) and *Lyu's Kwipithang* (柳氏歸脾湯) have anti-stress effects against psychological instability and mental stress. The *Lyu's Soyosan*(柳氏逍遙散) shows special effectiveness in depression of liver-energy(肝氣鬱結) and the *Lyu's Kwipithang* (柳氏歸脾湯) is also effective in deficiency heart-blood(心血不足).

附錄 1.

辨證 設問調查

아래증상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항에 ○표를 치십시오.

- 1)오른쪽 옆구리가 거북하거나 그득한 느낌이 든다 ( )
- 2)가슴이 답답하다 ( )
- 3)입안이 쓰거나 마른다 ( )
- 4)한숨을 잘선다 ( )
- 5)초초해지고 화가 잘난다 ( )
- 6)트림이나 구역질이 잘난다 ( )
- 7)머리가 자주아프다 ( )
- 8)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나온다 ( )
- 9)아랫배가 거북하거나 방구가 자주난다 ( )
- 10)가슴이 두근거린다 ( )
- 11)진망증이 심해지는것같다 ( )
- 12)작은일에 잘놀란다 ( )
- 13)정신적으로 피로하다 ( )
- 14)기운이 없고 나른하다 ( )
- 15)땀맛이 없고 소화가 안된다 ( )
- 16)불면증이 있다 ( )
- 17)어지러움증이 있다 ( )
- 18)꿈을 많이 꾀다 ( )

舌象 :

脈象 :



附錄 2.

自家平定不安尺度檢査  
( Key for scoring the SAS)

문항	A little of the time	Some of the time	Good part of the time	Most of the time
1. 요즘 신경이 날카로와지고 불안 해졌다.(Anxiousness)	1	2	3	4
2.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연히 두려 워진다.(Fear)	1	2	3	4
3. 사소한 일에도 당황해지고 무슨 일이 닥칠 것같이 몹시 불안하다 (Panic)	1	2	3	4
4. 정신이 산만해서 마음을 가다듬 을 수 없다. (Mental disintegration)	1	2	3	4
5. 만사가 순조로운 편이다. (Apprehension)	4	3	2	1
6. 이유없이 손발이 후들후들 떨린다. (Tremor)	1	2	3	4
7.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나 허리가 빠근하다.(Bodyaches)	1	2	3	4
8. 별로 하는것도 없이 쉽게 피로하 고 힘이 없다.(Fatigue)	1	2	3	4
9.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간다.(Restlessness)	4	3	2	1
10.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 린다.(Palpitation)	1	2	3	4
11. 어찢어찢하고 현기증이 난다. (Dizziness)	1	2	3	4
12. 졸도하거나 졸도할 것 같은 기 분이 들때가 있다.(Faintness)	1	2	3	4
13.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하기가 곤 란하다.(Dyspnea)	1	2	3	4
14. 손발이 저리거나 쥐가 날때가 있다.(Paresthesia)	1	2	3	4
15.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되어 격 정이다.(Nausea and Vomiting)	1	2	3	4
16. 소변을 자주보는편이다. (Urinary frequency)	1	2	3	4
17. 평소에도 손발에 땀이 많이 난다. (Sweating)	1	2	3	4
18. 헛사리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 달아오른다.(Flushing)	1	2	3	4
19. 쉽게 잠이 들고 실컷잔다. (Insomnia)	4	3	2	1
20. 자주 악몽에 시달려 잠을 설친다. (Nightmare)	1	2	3	4

附錄 3.

스트레스의 知覺檢査

다음은 지난 일주간 당신이 받은 스트레스의 양을 평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일종의 압박감으로 생각하고 그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급을 매겨 당신이 지난 일주간 받은 스트레스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치십시오. 단 스트레스는 반드시 나쁜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바랍니다.

- |                    |              |
|--------------------|--------------|
| 0 :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 5 : 상당히 있다.  |
| 1 : 거의 없다.         | 6 : 약간 심하다.  |
| 2 : 드물게 있다.        | 7 : 웬만큼 심하다. |
| 3 : 약간 있다.         | 8 : 꽤 심하다.   |
| 4 : 웬만큼 있다.        | 9 : 극도로 심하다. |

0은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사건이나 문제없이 걱정이나 고통이 없는 쾌적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9는 몹시 기분이 상한 상태로 긴장, 위장장애, 두통 등과 같은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비애 등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스스로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일, 직업 및 학교와 관계된 압박감의 정도는?  
0    1    2    3    4    5    6    7    8    9

---

- 대인관계(가족 및 기타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압박감의 정도는?  
0    1    2    3    4    5    6    7    8    9

---

- 대인관계의 변화(사망, 출생, 결혼, 이혼등)로 인한 압박감의 정도는?  
0    1    2    3    4    5    6    7    8    9

---

- (자신 혹은 타인의)병이나 상해에 의한 압박감의 정도는?  
0    1    2    3    4    5    6    7    8    9

---

-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압박감의 정도는?  
0    1    2    3    4    5    6    7    8    9

---

- 일상적인 것이 아닌 사건들(범죄, 자연재해, 우발사고, 이사등)로 인한 압박감의 정도는?  
0    1    2    3    4    5    6    7    8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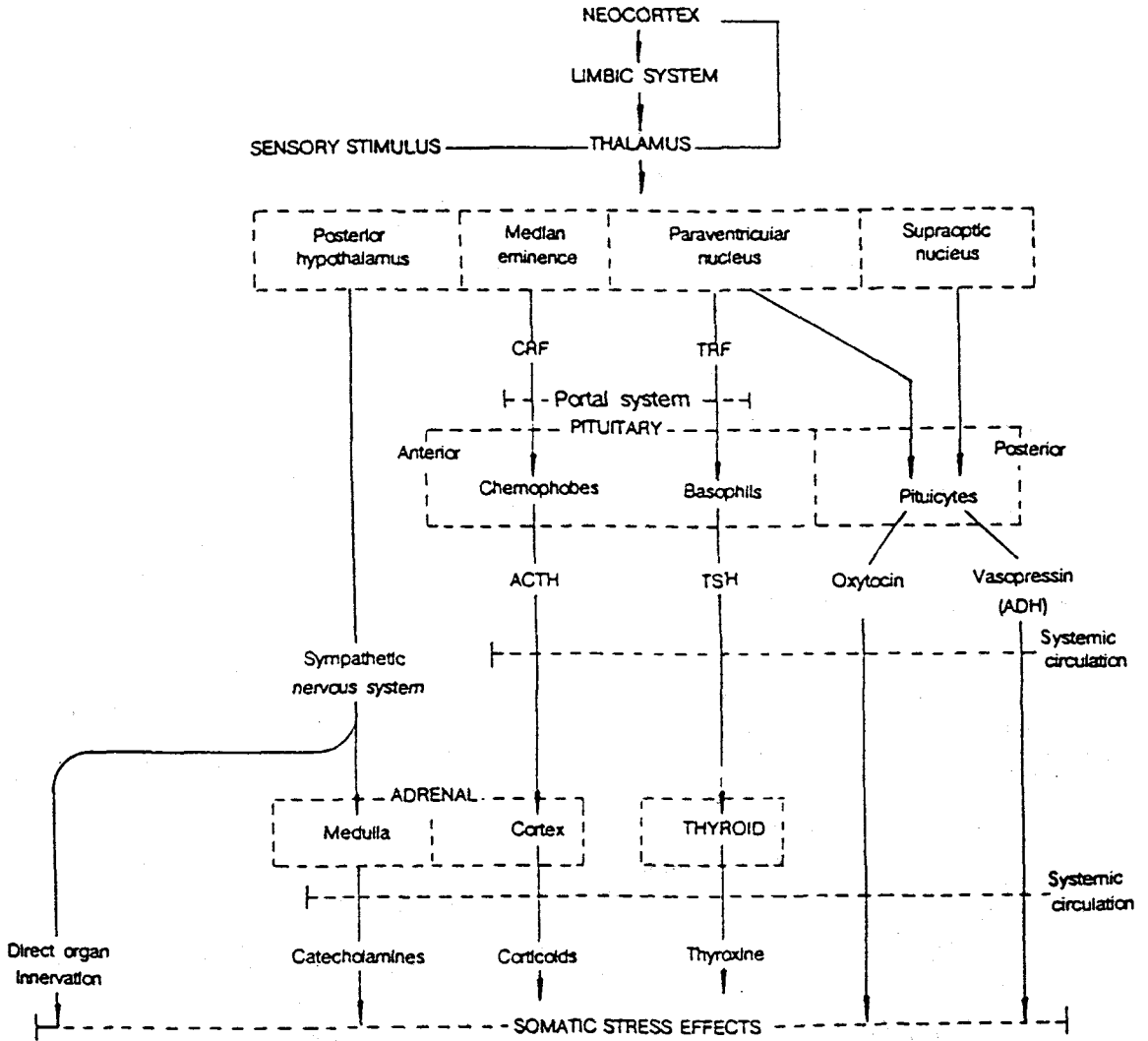
- 일상생활의 변화 때문에 혹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압박감의 정도는?  
0    1    2    3    4    5    6    7    8    9

---

- 지난 일주간 전반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의 정도는?  
0    1    2    3    4    5    6    7    8    9

附錄 4.

스트레스에 대한 神經內分泌 反應圖



附錄 5.

스트레스關聯 호르몬들의 脂肪代謝圖

